

충남도, 올 상반기에 4조 7,122억원 조기집행

- 일자리 지원 및 서민생활 안정 위해



충남도는 경기회복의 추진 동력을 유지하고 일자리 지원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재정 조기집행 상황실』을 설치하고, 올 상반기에 4조 7,122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도는 1월 6일(수) 오전 10시에 기획관리실장실에서 재정조기집행추진 관계관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도의「조기집행 비상대책 상황실」은 김기식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15개반 5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금년 6월말까지 운영된다.

금년도 재정조기집행은 국내경제가 회복되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고용부진 등 경제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09년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각종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책대 지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한다.

첫째, 시장경제 회복의 파급 효과가 큰 일자리 지원, 서민생활 안정 지원, SOC 확충 등 3대 분야에 중점 관리토록 했다.

둘째, 조기집행 과정에서 예산의 중복투자 등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낭비 신고센터」

활성화, 공사설계 지원단 구성·운영 등 지방재정의 건실한 집행을 위한 관리를 강화했다.

셋째, 재정집행촉진을 위하여 「긴급입찰」제도의 적극 활용, 「수의계약」범위 확대, 「주계약자 공동 도급제」실시 등 계약절차를 단축 또는 간소화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재정조기집행이 우수한 실적을 보인 시군에 대하여는 중앙 평가와 별도로 재정인센티브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道 관계자는 “지역경기의 조기회복을 위하여 일자리 및 서민생활 안정지원 등이 적기에 차질없이 추진되어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상반기 동안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에서는 금년도 재정조기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난해 말 정책사업비의 83.5%에 해당하는 3조 5,428억원을 이미 배정 완료 하였으며, 계속사업에 대하여 6건, 130억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충남도, 농어가인구 · 인력 전망을 통해 정책과제 제시

- 2020년, 20~40대 핵심 농업인력 8만3~9만4천명으로 전망



충남도가 1월 14일(목) “충남 농어가 인구 · 인력 전망과 정책과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충청남도 농어업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최근 농어촌인구 고령화, 귀농 · 귀촌 인구의 증가, 다문화가정 증가 등에 따른 향후 농업인력 전망을 통해 농어촌 사회정책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대응 필요에 따라 이루어졌다.

동 연구용역 결과 충남 농가인구는 연평균 3.0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거 추세연장법으로 추계해 볼 때 2005년도 44만6천명에서 2020년 22만6천명~31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코호트요인법으로는 32만7천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15~64세의 생산가능 농가인구는 2005년 35만8천명에서 2020년 15만7천명으로 감소하고, 20~49세의 핵심 농업인력도 12만3천명에서 7만8천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는 등 고령층이 증가하고 젊은층이 감소하는 역피라미드 인구구조로 변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어가인구는 2005년 27,575명에서 2020년 2만5천699명~2만7천696명으로 귀농인구는 2008년 545명에서 2020년 1,140명으로 증가하고, 외국 이주 여성은 2008년 1,266명에서 2020년 4,082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적으로 농어가 인구는 감소하고 귀농인구 및 이주여성이 증가하여 20~40대 핵심 농어업인력은 2005년 12만3천136명에서 2020년에 8만2천847명~9만3천682명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농어업인력의 감소 및 고령화로 농업생산력 증가추세 둔화, 고령친화 농업 등이 부상하고, 농업노동력 양적감소로 휴경농지 증가, 농업노동력 질적 저하에 따른 농업기계화, 위탁영농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분석됐다.

귀농·귀촌인구의 증가로 농촌지역 사회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귀농인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 농산물 가공·유통, 농촌관광 등 농촌경제가 다각화와 같은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농촌지역 공동체 변질, 기존 주민과 새로운 주민간의 생활패턴이 상이하여 기존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 등 부정적 측면도 예측됐다.

또한 다문화가정은 현재로서는 농업인력으로서의 중요성은 낮으나, 여성결혼 이민자의 자녀들은 잠재적 농업인력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농어업인력 변화 분석을 통해 기존 농업인력에 대해서는 지역유형별 차별화된 농업인력 정책 추진 등을 귀농·귀촌 인력에 대해서는 농촌형 사회적 일자리 발굴 및 농촌경제 다각화 방안 등, 다문화가정에 대하여는 포용과 인권중시, 다양한 배경의 다문화가정 특성을 고려한 정책 방안 등을 제시했다.

충남도, 금년도 수출 420억달러 목표 추진

- 세일즈맨 심정으로 올해도 적극적 수출 지원 활동 전개



충남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적극적인 통상 지원활동을 펼친다.

도는 올해 수출목표를 420억 달러로 설정하고 도내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와 농수산물 수출 지원활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우선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 지원을 위해 ▲미국, EU, 인도 등 무역사절단 13회 ▲해외전시박람회 단체참가지원 20회 ▲대규모 충남 우수상품 전시 상담회 개최 ▲토털 마케팅 지원분야 확대 등 20개 사업과, 도내 중소기업들의 수출 전진기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LA 무역관과 상해무역관 운영의 내실화를 다지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남미지역 수출교두보 확보를 위해 브라질 상파울루에도 무역관을 신설·운영하여 세일즈맨 심정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농수산물 수출의 조직화·규모화를 위한 ▲해외 거점 에이전트 사업 ▲충남 농수산물 상설관 설치사업 ▲농수산물 수출 선도조직 육성사업 추진과 ▷인삼의 세계화를 위해 ▲인삼공동브랜드 등록 ▲국제인삼약 초연구센터 건립 ▲2011 금산세계인삼엑스포개최 준비를 밀도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포 대표 역사문화축제 운영·연출「큐시트」 확정』

— 충남도·조직위, 2월 17일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갖고 본격준비 전환



2010세계대백제전이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대표 역사문화축제로 태어나기 위한 종합 운영 연출계획이 확정됐다.

2010세계대백제전 조직위원회(위원장 최석원)는 2월 17일 오후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대백제전 프로그램 운영 연출을 위한 종합실행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본격 준비체제에 들어갔다.

연구용역은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에서 수행해 그동안 중간보고회 2회, 추진상황 간담회 1회 등 7개월여 작업 끝에 이날 최종 제출된 것으로, '문화강국' 700년 백제의 역사를 보여줄 종합 시나리오가 확정됐음을 의미한다.

종합실행계획안은 오는 9월 1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세부 프로그램과 폐막행사에 이르기까지 세밀한 대응계획을 담아 축제 제작 운영자들의 실질적인 교본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이 계획안은 '위대한 왕국, 700년 대백제의 부활'이라고 하는 행사 슬로건을 표현하는 가운데 금강을 타고 문화와 교류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떨쳤던 옛 백제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문화적 상

상력과 현대 하이테크놀로지를 결합, 대서사 축제로 꾸며나간다는 점이 눈에 띈다.

프로그램은 22개 대표 프로그램과 70개 시·군 프로그램을 △공식행사 △공연·경연 △전시·학술 △재현·체험 △연계행사 등 5개 카테고리로 구분, 조직위와 공주시, 부여군 등 충남 도내 16개 시·군이 모두 참여해 국민적 대화합축제에 부합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관람객은 물론 축제 참가자들, 장애인, 어린이와 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한편 교통과 행사안전, 축제의 품격 유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

조직위는 이 종합실행계획을 바탕으로 남은 6개월여 기간동안 각 분야별로 완벽하게 축제 준비를 해나가 개막 5일전부터는 최종 리허설 단계에 진입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2010세계대백제전은 오는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한달간 충남 공주시·부여군·논산시 일원 10개 주요 행사장에서 세계역사도시연맹 회원도시 등 20개 도시 이상이 참가한 가운데 화려하게 펼쳐질 예정이다.

2010 '충남민속문화의 해' 사업 본격 추진

- 2월 23일, 도 영상회의실에서 제5회 민속문화추진위원회 열려 -



충남도가 민속 문화를 발굴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2010년 지역민속문화의 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우선 지난해부터 국립민속박물관과 공동으로 추진해 온 도내 중요 무형문화재 기록화사업과 민속문화 상품개발사업 등 4개 사업에 9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부여군 은산면 은산 1리 농촌마을과 서천군 서면 월하성리 어촌마을의 2개 지역의 의식주 생활양식, 민간신앙, 세시풍속에 관한 민속조사와 기록화 사업을 금년 7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도는 또한 2010「충남 민속문화의 해」 선포식을 오는 4월10일 기지시 줄다리기 행사와 연계하여 추진하며, 민속 사진집 발간과 민속소개 책자발간 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23일 열린 제5회 충남 민속문화 추진위원회에서는 금년도 추진사업인 ▲2010 「충남 민속문화의 해」 엠블럼 선정 ▲민속문화 상품개발 ▲충남민속 소개책자 발간 ▲백제관련 설화집 발간 등 총 10개 사업에 16억 5천만원을 투입키로 하고 이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심의했다. 도 관계자는 “「충남 민속문화의 해」의 중점 추진사업은 민속문화를 계승·보존하고, 지역의 민속문화를 관광 상품화하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 며, ‘2010세계대백제전’과 상호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 경제동향 한눈에... 월간 「충남경제」 창간



충남의 경제 현안과 주요 경제 동향이 담긴 월간지가 창간돼 기업인과 경제전문가 그리고 관련기관·단체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충청남도과 충남경제교육센터(충남발전연구원 부설)는 지역경제의 길잡이 역할을 담당할 월간 “충남경제”를 1월 15일 공동 창간하고 충남의 주요 경제정책, 국내외 및 지역경제 동향과 지표를 한눈에 제공키로 했다.

이번에 발간되는 경제동향지에는 타 발행지와 달리 국내 및 충남의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분석보고서가 함께 수록되어 있어 최근의 이슈와 지역경제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창간호에는 ‘2010 충남 산업경제정책 방향과 과제’ 및 ‘2010 경제전망’, ‘GRDP로 보는 충남경제’ 등을 주요 경제현안으로 다루고 있으며, 충남의 경제동향과 지표 등을 수록했다. 특히 충남도의 경제산업정책을 함께 소개하는 ‘충남경제일지’를 수록해 지역내 각 경제주체들에게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권희태 충남도 경제산업국장은 “올해 도정의 최우선 과제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인 만큼 지난해의 우수한 경제성장세를 몰아 더욱 견고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하면서 “이번에 창간된 ‘충남경제’를 통해 지역경제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고, 기업인과 도민 및 공직자들의 경제 지침서로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월간 “충남경제”는 500부씩 무료로 제작·배포되고, 충청남도과 충남발전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서비스되며, 매월 15일 발간된다.

충남발전연구, 유네스코와의 국제교류협력 방안 특강 가져

— 유네스코(UNESCO) 한국위원회 정우탁 정책사업본부장 초청



최근 충남도가 ‘공주·부여 역사유적도시’를 세계유산 잠정도시로 확정짓는 등 경제·통상 분야 이외 충남의 문화유산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사업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 CDI)은 2월 8일 오전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충남발전 전 직원, 충남도 국제협력 담당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네스코(UNESCO) 한국위원회 정우탁 정책사업본부장을 초청하여 ‘충남도와 유네스코 간 국제교류협력 방안’이란 주제로 특강 교육을 가졌다.

요즘 들어 언론을 통해 국내에 친숙하게 알려진 용어 중의 하나가 ‘세계문화유산 등재’라는 것인데, 바로 유네스코는 이러한 국제적 교육·과학·문화의 보급 및 교류를 통해 국가 간 협력 관계를 촉진함으로써 국제평화와 안보를 확보하려는 국제연합기구다.

특강에 나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정우탁 정책사업본부장은 “국가 간 국제교류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는 외자유치 등 경제적 · 산업적 교류 및 투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교육과 과학, 그리고 문화협력”이라고 언급하면서, “충남에서도 훌륭한 역사문화자원과 수려한 자연경관 등을 활용하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 생물권보존지역 지정, 그리고 더 나아가 유네스코 국제회의 유치 등 국제적 정보네트워크를 생성함으로써 충남의 브랜드를 홍보하고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강에 참석한 충발연 김용웅 원장을 비롯한 충남도 관계자는 “충청남도는 최근 다양한 국제교류 소재의 발굴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던 터”라고 언급하면서 “유네스코를 통한 양자간 국제교류협력을 뛰어넘어 다양한 형태의 다자간 교류협력사업은 물론, 유네스코와의 공동협력사업 발굴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하며, 국제교류 시야의 폭을 보다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충남발전연구, 정동기 사무처장 취임



정동기(57·전 충남도의회 사무처장, 사진)씨가 2월 8일(월) 충남발전연구원 제7대 사무처장으로 취임했다.

정 사무처장은 “30여년간의 공직 생활을 바탕으로 연구원의 효율적 운영과 연구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발연 김용웅 원장은 “정 사무처장의 탁월한 식견과 경륜으로 연구의 질 제고에 기여함은 물론, 평소 덕망있는 인품과 온화한 리더십으로 직원화합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사무처장은 충남 공주 출신으로 1981년 중앙공무원교육원 행정사무관으로 첫 공직 생활을 시작하여, 청양·예산군수, 아산시·논산시 부시장, 도 자치행정국장·문화관광국장, 도의회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충남도, 지방도시재생 활성화 대응전략 머리 맞대



충남도는 최근 도내 지방도시의 쇠퇴상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도시개발 및 정책의 패러다임이 도시재생으로 변화함에 따라 도시재생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도시쇠퇴상태의 체계적 분석 및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 CDI)과 함께 2월 9일 오전 충발연 대회의실에서 도시재생사업단 관계자, 충남도 및 16개 시·군 담당공무원, 그리고 충발연 도시재생 연구진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가진 것이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도시재생사업단 주관수 박사는 “도시재생 연계사업은 중앙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역발전 사업 중 기성시까지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들로, 이는 현행사업을 활용한 실현 가능성이 높고, 지역중심의 사업추진동력을 확보함은 물론 중앙정부의 일괄지원이 가능해져 종합적 관점의 사업계획이 가능하다.”고 정의하면서 “개별사업의 통합화

에 따른 시너지 효과 창출, 일괄심의를 통한 업무효율 증대, 지역민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로 지역 역량의 지속적 강화 등으로 한국형 도시재생이 구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남발전연구원 김정연 도시재생연구센터장은 “도시재생정책의 법 제정 및 사업의 구체화 등 아직까지 체계화되지 못한 사항들이 많지만 충남에서 이런 학습·토론하는 장이 마련된 것 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미 센터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충남의 내륙도시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도시쇠퇴가 예상되는 만큼 도 및 시군, 연구진, 그리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도시재생포럼’ 및 ‘도시재생컨설팅단’을 구성하여 도시별 재생과제 해결과 재생기법 마련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충남도 유영일 도시기반담당관은 “올해 개정되는 도시재생 관련법과 관련하여 도 및 시·군 의견 수렴 및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충남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지자체 지원반’을 운영하여 정부의 제도개선과제를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발연 전통시장연구회, 상권활성화구역제도 적극 대응해야



지난 12월 30일 개정된 전통시장 관련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상권활성화구역’ 제도에 대한 학습·토론의 장이 열렸다.

충남발전연구원 전통시장연구회(회장 권영현 연구위원)는 2월 9일 오후 3시부터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변화와 충남의 대응 전략 워크숍”을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갖고, 환경변화에 대응한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주체별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시장경영진흥원 김영기 박사는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변화와 충남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지금까지의 전통시장 정비방식은 하나의 시장을 대상으로 한 물적 정비 방식이었지

만 이번엔 ‘상권활성화구역’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물론 주변지역을 함께 광역적으로 정비할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 “이 제도는 이미 선진국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각 지자체에서는 시민·상인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와 지자체 내 부서간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발전연구원 임준홍 책임연구원은 ‘충남 전통시장 실태와 생존을 위한 제언’을 통해 “‘상권활성화구역’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업을 단순한 소매활동으로 보지 말고, 대형마트, SSM과 상생발전하는 ‘상업환경만들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일본의 후쿠시마현, 니혼마치시 등에서는 대형마트의 입지조정 등을 포함한 상업마치츠클리를 강조되면서 상업시설의 적절한 입지유도에 의한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는 벤치마킹 사례를 역설했다.

한편, 오늘 워크숍에는 한남대 이덕훈 교수, 충남도 박여중 경제정책과 생활경제담당, 그리고 충남연 전통시장연구회원 10여명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시간도 가졌다.

Tip. 상권활성화구역 :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이나 도·소매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는 구역 중 상업활동이 위축되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구역

충남발전연구, 2009년도 연구성과 연찬회 개최

– 연구결과물의 정책활용도 높이기 위해 노력할 터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 CDI)은 3월 2일 오전 10시부터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학계, 언론계, 관계 공무원, 그리고 연구진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도 연구성과 연찬회’를 가졌다.

이번 연찬회는 충발연구이 지난해 연구했던 21개 기본과제 중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연구로 선정된 6개 과제 발표와 함께 한남대 김태명 교수의 진행으로 연구성과물의 정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 등이 논의되었다.

이날 발표된 우수연구과제는 ▲최우수상 – “저탄소에너지절약형 도시계획의 정책과제 및 추진전략(오용준 책임연구원), ▲우수상 – 충청남도 농촌개발사업 추진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조영재 책임연구원), 역사문화도시 이미지 형성에 관한 연구(박철희 연구위원), ▲장려상

- 당진-대전, 서천-공주 고속도로 주변지역의 여건변화와 발전전략(김정연 선임연구위원), 금강살리기 사업의 갈등유형 분석 및 관리방안(최병학 연구위원), 행정구역 단위 CO₂ 배출량 추정을 위한 기초연구(이인희 책임연구위원) 등이다.

충발연 김용웅 원장은 “많은 연구결과물의 생산에 비해 그 활용과 가치를 높이는 데 부족함을 느낀다.”며 “오늘 발표된 6편의 과제를 포함한 주요 연구결과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정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충남발전연구원은 총 40명 중 27명의 연구직으로 기본·기획과제, 현안과제, 수탁과제 등 총 213건의 연구실적(디자인부문 77건 및 연구조성사업 53건 제외)으로 전국시도연구원 중 최고인 1인당 7.9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했으며, 2010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계획, 2단계 충남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국가공모사업에 대한 계획수립부터 교육에 걸친 코칭과 컨설팅으로 총 1,066억 원의 국비 및 예산 확보를 위한 지원연구를 수행하였다.

“충청남도 물 통합관리 워크숍 개최”

— 물 통합관리 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한 정보교류의 장 마련



충남발전연구원과 충청남도수질총량관리센터에서는 물 통합관리 중장기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한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2월 23일 물 통합관리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김영일 수질총량관리센터장의 “충청남도 물 통합관리 추진현황”, 박성제 미래자원연구원장의 “물관리체계와 4대강사업 - 물관리기본법(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정은성 박사의 “지속가능한 유역통합관리계획 수립 및 적용”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충청남도에서 선도적으로 추진중인 물 통합관리 현황 및 문제점, 중앙정부의 물 통합관리를 위한 물관리기본법의 추진현황 및 발전방안, 그리고 유역통합관리계획 수립절차 및 필요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충남발전연구원 및 수질총량관리센터에서는 워크숍에서 논의된 자료들을 물 통합관리 계획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물 통합관리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효율적인 물 통합관리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2010년 충청남도 시·군 평생교육관련 공무원교육 실시



충남도과 충남발전연구원 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센터장 최병학)은 '2009 충청남도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충청남도 시·군의 평생교육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충청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의 협조로 2월 2일부터 4일까지 교육원내 강의실에서 3일간(총 20시간) 진행이 되었으며, 도 내외의 평생교육 전문가 및 실무자 6인을 강사진으로 섭외, 교육을 실시하였다.

본 교육은 평생교육에 대한 이해력 증진과 각 시·군 평생교육 담당자들과의 네트워크 장 마련 및 업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계획되었으며, 국가평생교육의 정책적 방향, 학습네트워크, 평생학습에 대한 이해와 실천, 평생교육과 지역발전 및 주민의 성장,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업무에 대한 사례 등으로 구성, 일반 교육과 워크숍 형태의 교육이 병행되었다. 모든 교육과정의 종료 후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본 교육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충청남도 평생학습통합네트워크시스템 시연회 개최



충남발전연구원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센터장 최병학)는 2월 26일(금)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충남발전연구원 1층 대회의실에서 충청남도 평생학습통합정보시스템의 시연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충청남도 평생교육TF팀, 충청남도 교육청, 충청남도 각 시·군 평생교육 담당자 등이 참석하였으며, 그동안 추진해 온 충청남도 평생학습통합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진행과정과 시연을 실시하였으며, 시연 후 시스템에 대한 수정 및 보완, 개선 방안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본 시연회를 통해 종합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수정·보완하도록 하며, 향후 시·군의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도내 전 평생교육기관을 유기적으로 네트워크 할 수 있는 통합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 각 시·군 청, 도서관 등이 지속적으로 회의 및 의견개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에 공감하고 향후 시스템 구축에 동참할 것을 약속하였다.

금강살리기 범도민 협의회 간담회 개최



2010년 3월 3일(수) 충남발전연구원 1층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차 금강살리기 범도민협의회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간담회에서는 4대강사업 홍보물 방영, 금강살리기 사업의 진행상황 보고, 토론회와 현장방문이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이인화 충청남도지사 권한대행,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 오열근 협의회장 및 범도민 협의회 위원, 사업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금강살리기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교류되었다. 간담회 이후 공주지구(7공구)를 방문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였다.

공공디자인클리닉센터 2010년도 상반기 워크숍 개최



충남공공디자인클리닉센터에서는 지난 2월 25일(목), 걸쳐 충남발전연구원 1층 대회의실에서 충남공공디자인클리닉센터, 운영위원, 충남도청 건축도시과, 시·군 담당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도 클리닉센터 운영계획 및 운영위원 위촉을 위한 상반기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상반기 워크숍은 충남발전연구원, 충남도청 그리고 각 시·군의 공공디자인 추진계획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본 워크숍에 앞서 운영위원의 추가적인 위촉이 원장님의 임명장 수여식과 함께 진행되었다.

충남발전연구원에서는 ‘2010년도 공공디자인클리닉센터 운영계획 및 소개’라는 주제로 이충훈 센터장의 발표가 있었다. 작년도 클리닉센터의 업무성과와 시·군 업무지원에 대한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교육을 더 강화하며, 특히 주민참여를 통한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통해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공공디자인에 대한 주민의 참여율을 높이하고자 하였다.

충남도청에서는 ‘공공디자인으로 명품충남 만들기’라는 주제로 안진근 공공디자인담당장의 발표가 있었다. 충청남도의 공공디자인 비전과 목표 그리고 추진사업에 대한 설명 및 단계별 세부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16개 시·군 담당자들의 공공디자인 추진계획 및 작년도 사례 발표를 통해서 지원에 대한 보완점 등을 검토하였고, 각 시·군에서 추진하는 공공디자인사업을 통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2010년도 공공디자인클리닉 상반기 워크숍은 공공디자인클리닉사업의 안정적인 사업의 정착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한 지자체 공공디자인 담당 및 관계자의 토론내용 및 의견사항은 클리닉사업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